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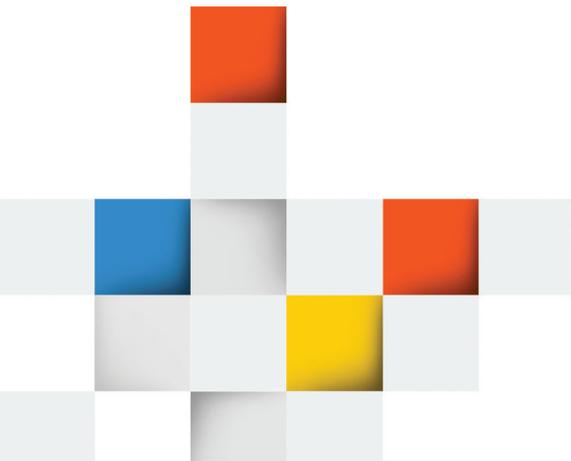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송유진 (동아대학교)

- 가구·가족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혼인건수 감소와 평균 초혼연령 증가가 관찰된다. 2023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이다.
- 남자와 여자 모든 연령집단에서 미혼율이 상승하였으며, 40~49세 남자의 미혼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0년에는 40~44세와 45~49세 남성의 미혼율이 각각 4.9%와 2.4%로 낮았으나, 2020년에는 그 수치가 각각 27.2%와 20.5%로 대폭 상승했다.
- 국제결혼은 2023년 전체 혼인 건수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외국인 배우자 중 여자는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순서로 많고, 남자는 미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 호주 순서로 많다.
- 남자 1인가구는 20~30대에 집중되는 반면, 여자 1인가구는 20대와 60대 이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부모가구는 2023년 전체 가구의 7% 정도를 차지하며,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대부분이다.
-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여전히 아내가 주로 담당한다. 자녀 양육은 가사노동에 비해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경향이 높지만, 아내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남편은 '놀이주기'나 '생활습관 훈육'에 참여한다.
-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은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결혼에 대한 허용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비혼출산에 대한 허용도는 높지 않다.
- 가족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의지가 되어 든든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

가구·가족 영역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관찰된다. 과거에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게 당연했다. 그러나 점차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지거나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결혼은 했으나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혹은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자녀를 낳기도 한다. 또한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국제결혼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는 가운데, 이 글은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가족 형성-가족구조-가족 관계 및 돌봄-가족 가치관으로 구성하였다. 가족 형성 부문에서는 혼인 건수, 조혼인율, 평균 초혼 연령의 변화를 파악한 후, 남자와 여자의 연령별 미혼율을 살펴본다. 또한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 국적 변화 추이도 살펴본다.

가족구조 부문에서는 1인가구에 주목하여 연령별, 성별, 혼인상태별 구성비율을 살펴본다. 더불어 한부모가구의 변화 추이와 미혼모 및 미혼부의 현황을 살펴본다. 가족 관계 및 돌봄 부문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또한 5개 영역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와 12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9개의 활동 분담 실태를 살펴본다.



가족 가치관 부문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진술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시기별, 연령별로 비교한다. 더불어 가족에 대하여 부담으로 인식하는지 든든함으로 인식하는지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사회조사」, 「가족실태조사」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가족 형성

동거가 결혼과 똑같이 여겨지고 비혼출산이 많은 서양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고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혼인 건수가 줄어 들고 평균 초혼연령이 높아지면 가족 형성도 영향을 받는다.

〈표 II-1〉을 살펴보면, 2000년 혼인 건수는 33만여 건 정도였으나 2020년에는 약 21만 건, 2023년에는 약 19만 건 정도로 감소하였다. 젊은 층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20년 사이에 혼인 건수가 10만여 건 이상 줄어 들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도 2000년에는 7.0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4.2건, 2023년에는 3.8건으로 줄었다.

평균 초혼연령 역시 꾸준히 높아졌다. 남자의 경우에는 2000년에 29.3세에서 2020년에는 33.2세, 2023년에는 34.0세로 높아졌고, 여자의 경우에는 2000년에 26.5세에서 2020년에는

30.8세, 2023년에는 31.5세로 높아졌다. 평균 초혼연령은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다.

〈표 II-1〉 혼인 건수 및 평균 초혼연령, 2000-2023

연도	혼인 건수 (건)	조혼인율 (인구 1,000명당 건)	평균 초혼연령(세)	
			남자	여자
2000	332,090	7.0	29.3	26.5
2005	314,304	6.5	30.9	27.7
2010	326,104	6.5	31.8	28.9
2015	302,828	5.9	32.6	30.0
2020	213,502	4.2	33.2	30.8
2023	193,657	3.8	34.0	31.5

주: 1) 조혼인율=(혼인건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표 II-2〉와 〈표 II-3〉은 성별과 연령집단을 구분하여 미혼율을 살펴본 결과이다. 연령별 미혼율을 통해서도 혼인 건수의 감소와 평균 초혼연령의 상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표 II-2〉에 제시된 남자의 연령집단별 미혼율을 살펴보자.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5~29세가 되면 미혼율이 낮아진다. 예를 들면 2000년에는 25~29세 미혼율이 71.0%로 20~24세 미혼율(97.5%)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다. 20~24세 남자의 미혼율이 2005년과 2010년에도 각각 98.2%, 98.8%였는데, 25~29세 미혼율은 각각 81.8%, 85.4%로 낮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25~29세 미혼율도 90%를 넘어서면서 이 패턴에 변화가 나타났다. 25~29세 남자의 미혼율이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90.0%와 92.2%로 높아져 20~24세의 미혼율과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이전 연령대와 미혼율의 차이가 가장 큰 연령대는 30~34세이다. 2000년에는 30~34세 남자의 미혼율이 28.1%로, 결혼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런데 30~34세 남자의 미혼율은 2010년 50.2%를 기록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절반을 넘었으며, 2020년에는 그 수치가 65.9%로 상승해, 같은 연령대 내에서 미혼인 사람이 더 많아졌다.

35~39세가 되면, 2000년에는 미혼율이 10%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5년과 2010년에는 미혼율이 각각 18.4%, 26.7%인 것을 볼 때 결혼연령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35~39세 남자의 미혼율은 2015년에 30%를 넘었고, 2020년에는 30% 후반대를 기록했다.

2000년에는 남자 나이가 40세가 넘어가면 미혼인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40대의 미혼

율도 점차 높아져서, 2020년에는 40~44세의 미혼율이 27.2%, 45~49세의 미혼율은 20.5%에 달한다. 이는 40~44세 남자 4명 중 1명, 45~49세 남자 5명 중 1명은 결혼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자의 연령별 미혼율도 남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표 II-3>에서 15~19세 여자의 미혼율은 모든 시점에서 99% 이상이다. 시점별로 차이는 있지만, 20~24세의 미혼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25~29세의 경우, 2000년에는 절반 이상이 결혼을 했지만(미혼율 40.1%), 이후에는 2005년 59.1%, 2010년 69.3%, 2015년 77.3%, 2020년 82.0%로 미혼율이 꾸준히 높아졌다. 이는 평균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여자 나이가 30~34세가 되면, 2000년에는 미혼율이 10% 정도로, 10명 중 9명은 결혼을 한 상태였다. 반면 2020년에는 동일한 연령집단의 여자 중 절반 정도만 결혼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 남자의 연령별 미혼율, 2000-2020

	(%)				
	2000	2005	2010	2015	2020
15-19세	99.7	99.8	99.7	99.8	100.0
20-24세	97.5	98.2	98.8	98.8	99.2
25-29세	71.0	81.8	85.4	90.0	92.2
30-34세	28.1	41.3	50.2	55.8	65.9
35-39세	10.6	18.4	26.7	33.0	37.8
40-44세	4.9	8.5	14.4	22.5	27.2
45-49세	2.4	4.5	7.5	13.9	20.5

주: 1) 미혼율=(해당 연령집단별 내국인 미혼자 수÷해당 연령집단별 내국인 수)×10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표 II-3> 여자의 연령별 미혼율, 2000-2020

	(%)				
	2000	2005	2010	2015	2020
15-19세	99.3	99.6	99.6	99.8	99.9
20-24세	89.1	93.7	96.0	96.8	98.0
25-29세	40.1	59.1	69.3	77.3	82.0
30-34세	10.7	19.0	29.1	37.5	46.0
35-39세	4.3	7.6	12.6	19.2	23.3
40-44세	2.6	3.6	6.2	11.3	14.7
45-49세	1.7	2.4	3.3	6.4	9.8

주: 1) 미혼율=(해당 연령집단별 내국인 미혼자 수÷해당 연령집단별 내국인 수)×10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35~39세 여자의 미혼율 역시 2000년에는 약 4%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높아져서 2020년에는 약 23% 정도가 미혼이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40대 여자의 미혼율은 2000년에는 매우 낮았으나, 2020년에는 40~44세와 45~49세 미혼율이 각각 14.7%, 9.8%로 높아졌다.

가족 형성에 있어서 국제결혼의 변화도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관찰된 중요한 현상이다.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2000년에는 국제결혼 건수가 1만 1,605건에 불과했으며, 전체 혼인 건수 중 3.5%를 차지했다. 이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 6,945건,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이 4,660건이었다. 2005년에는 국제결혼 건수가 4만 2,356건으로 급증했고, 전체 혼인 건수 중 13.5%를 차지했다.

2005년 이후 국제결혼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0년대 후반 베트남 여자와의 결혼 증가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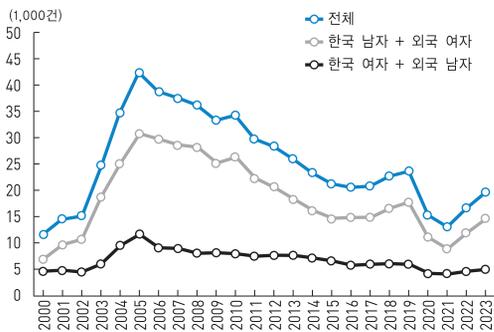
께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코로나 시기에 주춤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2023년 1만 9,717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관찰된 국제결혼에서는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 비중이 계속해서 높게 나타난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 국적도 다양해졌다. [그림 I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자의 대다수가 중국인이었고, 다음은 필리핀인, 일본인 순이었다. 중국 인과의 결혼은 1990년대 초 한·중 수교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조선족 여자와 국제결혼이 늘어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005년에는 국제결혼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중국 여자와의 결혼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 또한 베트남 여자와의 결혼이 2000년에는 77건이었으나 2006년에 10,128건으로 급증한 후 코로나 이전까지 약 6,500여 건을 유지했다. 필리핀과 일본은 2010년대 초반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고 태국 여자와의 결혼은 201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으로는 베트남 여자가 가장 많고 중국, 태국 순으로 많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출신 국적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과 비교해 약간 다르다. [그림 II-2-2]에서 미국 남자와의 결혼 건수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남자와의 결혼 건수는 2000년에는 210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 5,037건으로 급격히 늘어

[그림 II-1] 국제결혼 건수, 2000-2023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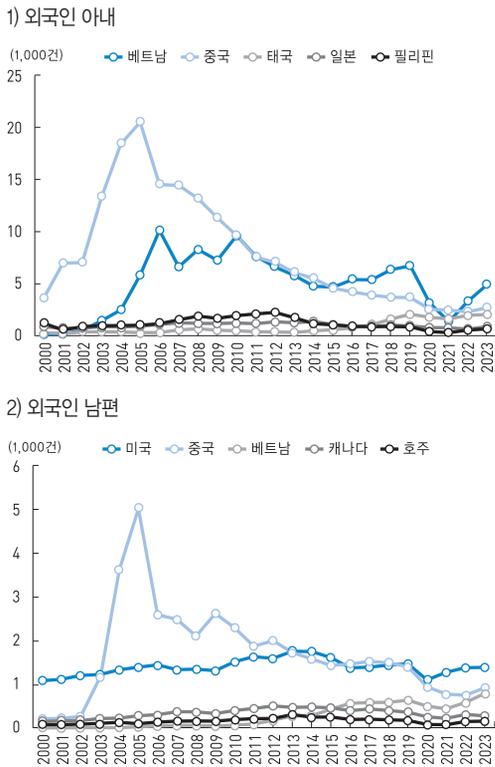
난 이후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편, 일본 남자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0~3,000건 정도였으나 2015년부터는 줄어들었다.

베트남 남자와의 결혼 건수가 2000년 3건, 2010년 67건에서 2023년 현재 약 800건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적이다. 캄보디아 남자와의 결혼 역시 규모는 작지만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41건으로 급증한 후 150건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혹은

캄보디아 여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이나 사별 후 본국 출신의 남자와 재혼한 결과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 국적 상위 5개 국가를 살펴보면, 외국 여자는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순이고, 외국 남자는 미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 호주 순이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외국 남자는 아시아와 서구 사회 출신으로 구성된 반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자는 아시아 출신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II-2]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 국적별 국제결혼 건수, 2000-2023



주: 1) 2023년 기준 외국인 배우자 상위 5개 출신 국적별 변화 추이를 제시한 것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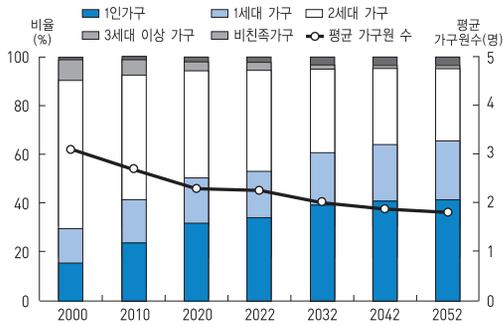
가족구조

가족구조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주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는 줄어들고, 1인가구, 1세대 가구, 비친족 가구 등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림 II-3]에 따르면, 2000년에는 2세대 가구가 60.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44.0%로 줄었고, 2052년에는 29.6%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1인가구와 1세대 가구는 2000년에는 각각 15.5%, 14.2% 정도였으나 2020년에는 31.7%와 18.6%로 늘었다. 지난 20년 사이에 1인가구가 2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2052년에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4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친족 가구는 2000년에는 1.1%, 2020년에는 2.0%, 2052년에는 3.5%로,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II-3]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 및 세대구성, 2000-2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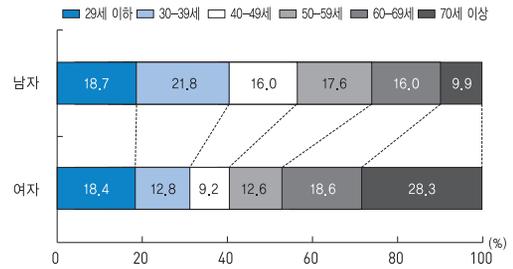
주: 1) 1세대 가구는 부부, 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2)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3)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미혼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2022년 이후 자료는 추계치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2020; 「장래가구추계: 2022-2052」, 2024.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연령구성이 다르다.

[그림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1인가구는 29세 이하와 30~39세의 비중이 높다. 남자는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20~30대에 혼자 사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자 1인가구는 2023년 기준 29세 이하가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다가 60~69세에 다시 18.6%, 70세 이상은 28.3%로 높아진다. 이는 [그림 II-5]에 제시된 1인가구 가구주의 혼인상태구성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29세 이하의 1인가구는 대부분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미혼이지만 혼자 사는 경우일 것으

로 생각되고, 70세 이상은 사별 후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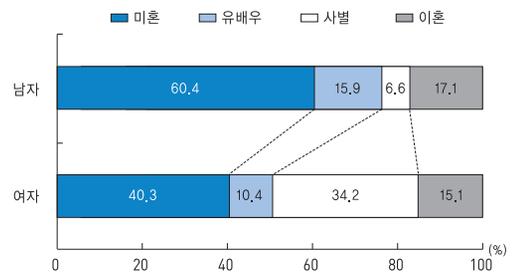
[그림 II-4] 1인가구의 성별 연령구성, 2023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3.

[그림 II-5]를 보면, 2020년 기준 남자 1인가구는 미혼 상태가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혼과 유배우는 각각 17.1%, 15.9%이며, 사별은 6.6%이다. 반면, 여자 1인가구는 미혼과 사별의 비중이 각각 40.3%와 34.2%로 높다. 이는 [그림 II-4]에서 살펴본 여성 1인가구의 연령별 구성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I-5] 1인가구의 성별 혼인상태구성,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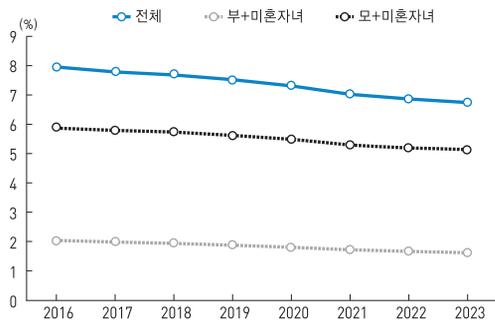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이 글에서 그래프나 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인가구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가 있는데 1인가구인 경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본인의 직장'과 '가족 상황'이 주된 원인이었다. 다만 남자는 '본인의 직장'이 1순위였고, 여자는 '가족 상황'이 1순위였다.

최근에 한부모가구와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혼인상태가 미혼, 이혼 및 사별이며 미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변화 추이추이를 [그림 II-6]에 제시하였다.

한부모가구는 2016년 154만여 가구에서 2023년 149만여 가구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8.0%에서 2023년 6.8%로 감소하였다. [그림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부모가구는 대부분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되었다. 아버지와 자녀로 이루어진

[그림 II-6] 한부모가구 비율, 2016-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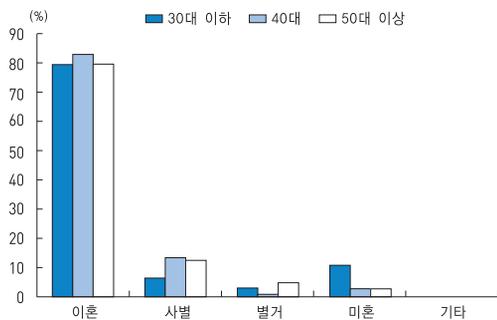


주: 1) 한부모가구는 한부모의 혼인상태가 미혼, 이혼 및 사별이면서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일반가구로, 기타가구원이 있는 경우도 포함함.
 2) 한부모가구 비율은 전체 일반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 중 1~2%를 차지하는 반면,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 중 5~6%를 차지한다.

2021년에 실시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부모가구 부모의 연령별 혼인상태를 살펴본 결과(그림 II-7), 이혼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40대와 50대 이상은 사별하여 한부모가구로 된 경우가 10%를 약간 웃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 이하는 미혼인 비중이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미혼인 상태의 한부모가구는 아래에서 살펴볼 미혼모, 미혼부와 연결된다.

[그림 II-7] 한부모가구의 연령별 혼인상태구성, 2021



주: 1) 한부모가구는 한부모의 혼인상태가 미혼, 이혼 및 사별이면서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기타가구원이 있는 경우도 포함함.
 출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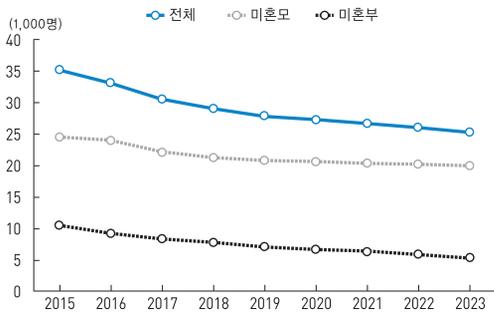
「인구총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미혼모와 미혼부는 2015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5년에는 미혼모와 미혼부를 합하여 3만 5,088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만 5,264명으로 감소하였다(그림 II-8).



연령집단별 미혼모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세 미만 미혼모가 2015년 350명, 2020년 231명, 2023년 156명으로 나타난다. 소수이긴 하지만 20세 미만 미혼모는 자녀를 키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대 미혼모 수는 2015년 4,942명, 2020년 3,839명, 2023년 3,115명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감소 폭이 크지 않다.

미혼부는 20세 미만이 2015년에 84명이었고, 2020년과 2023년에는 너무 소수라서 보고되지 않는 수준이다. 20대 미혼부는 2015년 908명, 2020년 444명, 2023년에는 206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 미혼모 및 미혼부 수, 2015-2023



주: 1) 미혼모 및 미혼부는 18세 이하 자녀의 친모 및 친부이면서 혼인상태가 미혼인 부모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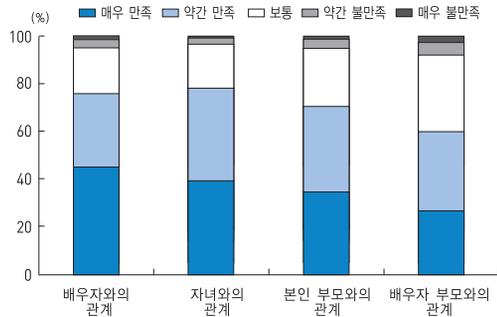
가족관계 및 돌봄

가족관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로 구성된다. 2022년 「사

회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기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림 II-9]를 보면, 모든 관계에서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 응답을 합한 비율이 60~8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이고,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관계는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이다. 그러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도 ‘보통’이라는 중립 응답이 높은 편이고,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 응답을 합쳐도 7.8% 정도로 높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관계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9] 가족 관계 만족도,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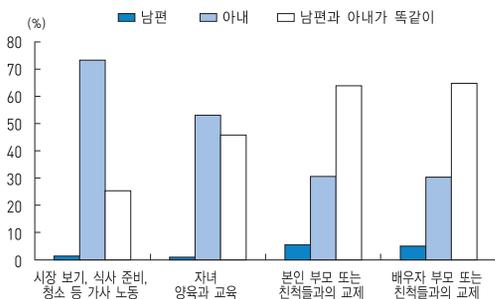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4.

다음으로는 2023년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부간 가사 수행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주로 누가 하는지 분담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림 II-10]을 보면, 일반적인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및 교육, 본인 부모 및 친인척과의 교제,

배우자의 부모 및 친인척과의 교제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및 교육은 압도적인 비중으로 아내가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사노동은 아내가 70% 이상, 자녀 양육 및 교육 역시 아내가 53% 정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활동에서도 ‘주로 남편이 수행한다’는 비중은 미미했다.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비중은 가사노동보다는 자녀 양육 및 교육에서 높게 나타난다. 자녀 양육 및 교육은 부부가 같이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및 친인척과의 교제 활동은 남편과 아내 똑같이 수행한다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 및 친인척과의 교제 활동은 가끔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및 교육과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림 II-10] 부부간 가사 분담,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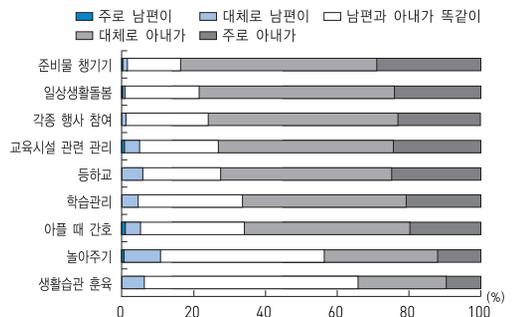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해당 없음' 사례를 제외하여 집계한 구성비임.
 2) 조사대상은 주말부부를 포함하여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의 남편과 아내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3.

구체적으로 다양한 항목에 대해 12세 미만 자녀를 누가 돌보는지 [그림 II-11]에서 살펴보았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이 9개—일상생활, 아플 때 간호, 학습관리, 놀아주기, 등하교, 교육시설 관련 관리, 준비물 챙기기, 각종 행사 참여, 생활습관 훈육—로 구분된다.

모든 자녀 양육 관련 항목에서 아내가 수행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체로 아내'와 '주로 아내' 응답을 합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오는 항목은 '준비물 챙기기'이고 '일상생활 돌봄', '각종 행사 참여'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다. 매일 일상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나 학교와 관련된 행사 참여는 여전히 아내가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생활습관 훈육', '놀아주기'는 부모가 똑같이 한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돌봄 활동은 주로 아내가, 가끔 일어나거나 즐거운 활동에는 남편의 참여가 늘어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II-11] 부부간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 2023



주: 1) 통계치는 '해당 없음' 사례를 제외하여 집계한 구성비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3.



가족 가치관

가족과 관련한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진술에 대한 응답을 [그림 II-12]에서 살펴보았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2018년과 2024년 모두 절반 이상이 ‘전적으로 동의’나 ‘약간 동의’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응답자의 다수는 결혼하면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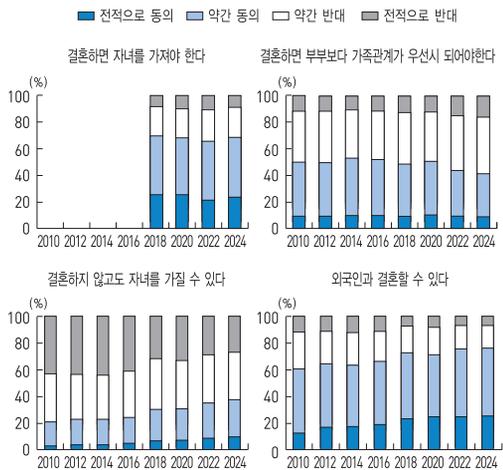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2010년에 동의하는 비율이 20.6%였는데, 2024년에는 37.2%로 크게 늘었다. 다만 최근 비혼출산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동의 정도는 다른 진술에 비해서 높지 않다.

‘결혼하면 부부보다 가족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2010년에는 동의하는 비율과 반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했으나, 2024년에는 동의하는 비율이 41.1%, 반대하는 비율이 58.9%로 차이가 벌어졌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부부 중심의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2010년에도 응답자의 60.3%가 동의하였으며 2024년에는 76.1%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진술에 대한 의견과 개인이 직접 경험했을 때의

반응은 다를 수 있지만,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가 시기에 따라 변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림 II-12] 결혼에 대한 가치관, 2010-2024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18년부터 조사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이번에는 위의 4개 진술에 대한 연령별 동의 정도를 가장 최신 자료인 2024년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그림 II-13). 성별 차이보다는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서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진술에 대한 연령별 응답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동의’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전적 동의’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11.1%, 30대 13.8%, 40대 15.6%인데 반해 50대 부터 20%를 넘기 시작해서 70대는 47.5%, 80대

이상은 절반 정도가 '전적 동의'라고 응답하였다.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급격히 높아진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약간 반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반대하는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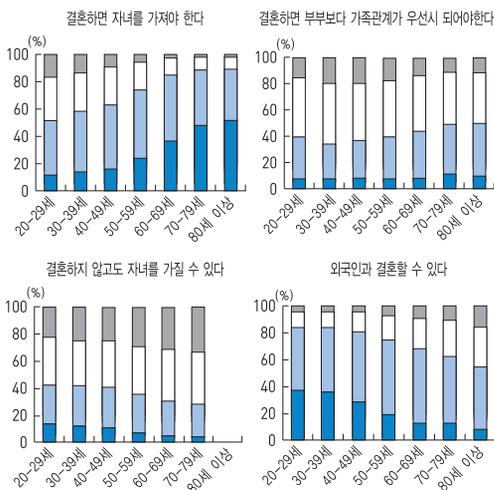
'결혼하면 부부보다 가족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20대부터 70대까지는 '약간 반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에 비해 80대 이상은 '약간 동의'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다.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는 응답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전적 동의'하는 비중은 20대와 30대는 35%를 넘었으

나 나이가 들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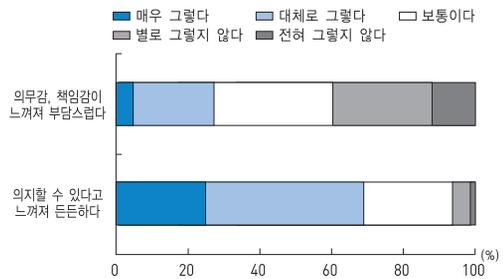
이번에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다(그림 II-14). 가족을 부담으로 인식하는지 혹은 든든함으로 인식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담으로 인식하는 응답은 27.2%, 중립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은 33.0%, 부담으로 인식하지 않는 응답이 39.8%였다. 가족을 부담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다른 응답들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가족을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함으로 인식하는 진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미미하다. 보통이라는 중립적인 응답도 있지만 68.8%는 가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13] 성인의 연령별 결혼에 대한 가치관, 2024



주: 1) 만 2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II-14] 가족에 대한 생각, 2020



주: 1) 만 12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0.

맺음말

과거에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꾸려야 한다는 규범이 보편적이



었다. 그러나 점차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도 다양해졌으며, 1인가구, 한부모가구, 미혼모와 미혼부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도 관찰된다.

그러나 결혼과 관련된 가치관을 살펴보면, 비혼출산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지 않고 결혼과 출산의 연계에 대한 가치관은 높은 편이다. 결혼과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과 행위가 변화하고 있

지만 전통적인 가치관도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혼과 관련된 가치관은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과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 및 가구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